



경향신문에 실린 김상천 문예비평가의 “‘올바른’이라는 명명법”이라는 제목의 시론을 소개하면서 문을 열까 한다.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 표현은 수정했음을 알립니다.)

“교과서의 이름을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로 명명하기로 했다. 내 눈에는 다른 무엇보다 여기서 ‘올바른’이라는 수식이 간단하지 않은 기호임을 본다.

우선 ‘올바른’의 정치적 기원부터 보자. ‘올바른’은 원래 단순하게 ‘오른쪽’을 가리키던 ‘right’가 정치적 의미를 얻게 됐다. 그 계기는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열린 국민공회에서 왼쪽에 급진적인 자코뱅당, 오른쪽에 보수적인 지롱드당이 앉았다. 당시 자코뱅당은 소시민과 민중을 대변하며 강한 중앙 집권과 사회복지를 강조했다. 반면 지롱드당은 부르주아 계급을 대변하며 지방분권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좌파(left)는 진보적인 평등주의 철학에, 우파(right)는 보수적인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출발했다. 이후 프랑스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우파가 정치권력을 장악하자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게 될 언어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연 우파가 ‘올바른’, 우파가 ‘정의’다, 우파야말로 ‘공정하다’는 의미가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즉 권력을 장악한 계급이 언어까지 장악하고, 우파가 올바르다는 식의 특정한 시각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중략) ‘올바른’이라는 이름 붙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 이상의 무서운 권력의 코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치의 제도화’이다. 물질 자산과 권력을 획득한 그들이 영원히 지배적으로 그들의 자산과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 재생산, 확산시키고자 하는 숨은 뜻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는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라 제도적인 폭력이라 비가시적인 ‘상징폭력’의 한 형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62034255&code=990303

“‘올바른’ 역사해석이 어디 있냐”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역사해석만이 옳으며 따라서 이것만 믿으라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그 의도를 대중에게 또 학생에게 강제하는 자들은, 불의했던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대대로 이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올바른’이라는 단어에 감춰진 엄청난 음모와 정치성을 우리는 간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식당 입구 세월호 리본 모양의 상징물을 보고, 31개 곰탕 예약 해놓고 돌아가 버린 ‘늪은 일베’ 행태에 격분한 고상만 선생, 아내분과 함께 ‘연지연곰탕’에 가서 두 그릇을 드셨다지요. 여기에 착안해 저는 어제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에서 “나머지 29그릇은 우리가 책임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1000그릇 주문(택배 배송용)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영혼 있는 진국’ 연지연곰탕에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9개 곰탕 응원하기] 연지연곰탕 주문번호
010-7252-1114, 031-989-9968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간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심정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을 미행하고 이틀씩이나 감금시킨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당이 화적 떼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TF가 정권 차원의 국정화 추진 비밀 팀으로 보인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 소집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할지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TF 사무실 앞 대치를 공무원 감금 행위로 규정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김무성 대표 또 서청원 최고위원이었다. (jtbc)

○...“앞으로도 사장 선임 절차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우리 나름대로 선정된 5명의 면접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당 추천의 장주영 KBS 이사의 말이었다. KBS 이사회는 오늘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을 KBS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고대영 후보자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특보방송 편파, 용산참사 축소·편파 보도 등 편파 방송을 이끌어 93.5%, 84%의 불신임을 받을 정도로 기자들에게도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공영방송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국영방송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jtbc, 한겨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주 만나고”

금강산에서 두 차례로 나눠 열린 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어제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65년을 기다려왔던 가족들에게 꿈같은 2박 3일이었겠지만, 헤어짐은 순간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남쪽에만 6만 6천여 명인데, 남북 각각 100명씩 만나는 지금의 상봉 방식으로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 제안에 북측도 “협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충복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 발언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 진전에 달린 만큼 남북이 합의한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SBS)

○...“홈에서 1승을 잡았고, 더군다나 역전으로 이겨서 분위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류중일 감독 말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두산에 역전승하며 먼저 1승을 챙겼습니다. 삼성은 4점 차로 뒤지던 7회, 나바로가 추격의 석 점 홈런을 터뜨렸고 이어

두산 내야수 오재일의 실책으로 두 점을 추가해 9대 8로 승리했습니다. (SBS)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G마켓 <http://goo.gl/HDXK0l>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차과장중고차 010-5556-6885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flowergood.co.kr>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

[국민일보] [단독] “국정화 역 여론전 나서나” 시정연설에 보수단체 회원 80여명 초청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매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는데 올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오늘 연설 때 보수우익단체 회원 80여명을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80여명의 참관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이들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외부 참관인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초청된 인사 가운데 일부는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2001년 예비역 육군 대령인 서정갑씨 주도로 결성됐다.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서 씨는 덕수궁 대한문 앞의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영정을 탈취한 적도 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시정연설에서 이들을 초청한 게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우세해지자 역(逆)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접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자리에 청와대가 보수단체 회원들을 초청한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95535&code=11121100&sid1=pol>

[한겨레] 청와대, 국정화TF 개입 시인 “교문수석실이 상황 관리”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일점검회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팀한테서 보고받아온 것을 시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국정화 관련 일일점검회의 여부를 묻는 한겨레 기자 질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한다 할지...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국정화 작업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 정황을 인정한 셈이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 구성·운영계획(안)’ 문건을 보면, 티에프팀 상황관리팀의 업무에 ‘BH(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청와대에서 일일점검회의가 열리고, 국정화 티에프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야당이 전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 있는 티에프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오석환 티에프 단장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도종환 의원이 전했다.

청와대가 교과서 국정화의 ‘몸통’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 쪽은 “소관부처는 교육부”라며 선을 그어왔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와대가 별도의 지침을 하달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예고 훨씬 이전부터 청와대의 진두지휘 아래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이 드러난 셈 아닌가.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4526.html>

[한겨레] [단독] ‘국정화 비밀TF’ 사무실 쓰레기 더미서 수천 장 분량의 파쇄 문서 발견

정권 인수인계 기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다. 서류 태우는 것이다. 어제 저녁 6시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한 정부의 ‘비밀 조직’으로 의심받고 있는 비공개 티에프(TF) 직원 3명이 ‘퇴근’했다. 야당 의원들이 현장에 찾아온 이후 22시간 만이다.

자, 그런데 <한겨레> 취재진은 이 건물 안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 언론사의 이름과 <표표스스>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름이 담긴 파쇄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다. 단어 단위로 잘게 파쇄된 수천여장 분량의 문서에는 ‘좌편향’ ‘어버이연합’ ‘에스엔에스 국정화지지활동’ 등의 단어도 적혀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625.html

[경향신문] [국정교과서 ‘비밀 TF’ 파문] TF단장 출장 ‘교육개혁 점검’ 포장...반대 단체·필진들 동향 감시 정황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됐으며, 황급히 파쇄 됐을까. 이 기사에 답이 있는 것 같다. TF에서는 검정교과서 필진과 국정화 반대 단체 동향을 파악·추적한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가 근무하는 고교에 전화해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전화가 걸려온 번호는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가 아니라 TF가 작업 중인 서울의 국립국제교육원이었다. 전화한 이모 주무관은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제보를 받아 공개한 TF 명단에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엔 TF의 최 모 연구관이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리는 국정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보고 있는 게 확인됐다. TF 21명의 소관 업무표에서 그의 업무는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라고 적혀 있었다. TF는 최근 적극적인 국정화 반대 활동을 펴온 전국역사교사모임에 색깔 공세를 펴는 작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TF 업무범위는 국사편찬위에 넘겼다는 집필진 구성 외에 언론동향 파악

과 언론 기고·패널 섭외 등 여론전 업무도 포함돼 있다. 이런 활동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4명으로 출범시킨 역사교육지원팀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70600025&code=940401

[한겨레] 스스로 문 잠갔는데...새누리 또 '감금' 주장

정신 나간 새누리당 이야기 좀 해보겠다. 특히 감금시켰다는 주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티에프 근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말했다. 회의 뒤 기자들에게도 “국회의원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일하겠는데 범죄자 취급하고 불법 감금하고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 의원들은 면담을 요청한 채 묵묵히 기다렸을 뿐 출입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채 나오지 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감금했거나 경찰들이 감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원 사무실에 공무원이 여러 명(3~4명 추정) 있었고, 야당 의원들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경찰이 건물을 에워싼 점 등을 들어 2012년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힌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왜 그랬나, 2012년에 먹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4530.html

[경향신문] [국정교과서 '비밀 TF' 파문] 여당 최고위 "TF를 외부에 노출시킨 세작 공무원 찾아내야"

몰래 운영된 조직의 업무내용이 드러날까 봐 공무원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것을 두고 '불법 감금'이라고 억지를 펴는 것은 조족지혈이다. 압권은 또 있다. 교육부가 비밀리에 운영해 온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들통 나자 새누리당이 '적반하장식' 총력 방어에 나섰다. 비밀 TF를 폭로한 야당 의원들을 '화적떼'에 비유하고, “현행범이므로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등 막말까지 동원해 필사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화적떼'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에 빗대 이들을 비방했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 부끄럽다”면서 “(TF 운영 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킨 일종의 세작(간첩)과 같은 공무원도 이번에 찾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정상적인 업무, 합법적인 업무인데 세작이라니. 이젠 또 무슨 소리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62254145&code=910402

[한겨레] [사설] 뭐가 쟁기길래 '비밀 국정화 티에프'까지 꾸렸나

한겨레 사설 일부다. “여론이란 티에프 따위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개인 신념을 정책화하려 애꿎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비밀 티에프'를 꾸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론에 따라 국정화를 취소해야 한다. 퇴행적인 국정화 작업은 그 어떤 '비밀작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 뉴스의 재구성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JT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지칭하며 '배신의 정치' 운운한데 대해 “그 당시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당원 동지 이렇듯이 동지란 말이 뜻을 같이한단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반응.

동지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시절 대변인 역할을 했던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의중을 묻지 않더라도 동지란 몸종이 아님은 자명한 바. 전 전 의원은 '유신 공주'라고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정받던 굴욕적이고 눈물겨운 과정을 2012년에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토로했는데.

[경향신문] 황 총리, 이재용 부회장에 청년희망펀드 감사전화...“대기업 안 받겠다”더니

오늘 출근하면서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들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누구라도 재벌 오너와 따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니 상식을 유시민 전 장관이 발언한 부분을 들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단계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그 의미가 새로웠다. 권력자와의 만남 또 친분은 또 다른 권력을 낳거나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병환 중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선뜻 기부하신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다. 이견희 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진이 청년희망펀드에 250억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달한 것인데. 황 총리는 또 청년희망펀드 개설과 동시에 기부 참여한 박현주 미래셋 회장에게도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황 총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몇 십억 내놓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금 안 받겠다”면서 “개인 명의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삼성 사장단·임원진 기부도 이견희 회장을 비롯한 '개인명의로' 이뤄지긴 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 몇이나 있겠나. 이 접촉이 또 다른 권력 또는 또 다른 권력의 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했지? 삼성이 하듯 너희도 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 위상이 비슷한 재벌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기부액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까지 기부액 집계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현대차그룹에서 정몽구 회장이 150억 원, 그룹 임원진이 5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근데 이걸로 뭐한다는 거지? 조선일보 통일펀드만큼 용처가 궁금해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61942201&code=910402

[한국일보] [단독] 상고법원, 대법원 특별재판부로 신설 추진

'밀려드는 감기 환자 때문에 대학병원이 정작 치료법 연구를 못하고 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퇴임 직전 1년에 3만 건 이상의 사건이 밀려드는 대법원의 어려움을 병원에 빗대 이같이 토로했

다. 심 판결에 불복하는 3~4만 건의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나눠 전자는 대법관들이, 후자는 새로 설치된 상고법원 판사들이 판결하게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3심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국회의 난색으로 진척이 없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래서, 상고법원에 대한 국회 논의가 원활하지 않자, 대안으로 대법원 내부에 상고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고법원같은 구조지만, 판결은 대법원 이름으로 내는 셈이다. 절충안이라 하겠는데, 대법원은 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의 대법관 고충을 알아줘야 한다는 식으로 전했다.

<http://www.hankookilbo.com/v/d8caa9ed5e514c4c9796e22419555329>

[한국일보] 국회 예산심의권 되레 줄어들어... 비판, 감시 기능 약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회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힘이 없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국정교과서 개발 비용 4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권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자 야에 국회 동의를 필요 없는 항목에서 이를 지출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일제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편성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분기탱천했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별다른 방안도 없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핵심당직자는 “새누리당이 특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작 개정하고픈 쪽은 우리”라며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회, 특히 야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이젠 노골적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 자동부의, 이게 뭐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대립해서 예산 통과가 미뤄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의되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이 자동적으로 부의되는 것이다. 이리다보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때면 진전공급하던 이전의 기재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핵심기능이 입법과 예산심의인데, 선진화법으로 예산심의권이 약화됐다. 게다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강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지? 수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동의해줬다가 결국 쫓겨났다.

<http://www.hankookilbo.com/v/59cfa651ddac4e4ca18fc6d5688e4899>

[한겨레] KBS 새 사장 후보에 고대영씨

KBS 이사회가 조대현 사장 후임으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새 사장 후보로 뽑았다. 한국방송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 등 양대 노조와 4대 직능협회, 언론시민사회가 ‘절대 불가’를 외친 부적격 인물이어서 국회의 인사 청문회까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새노조는 이날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거부한다”고 외치며 농성에 돌입했다.

투표에선 이사 1명당 1표씩 행사했으며, 고 전 본부장이 7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는 달리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반대표 없이 고 후보를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국방송 안팎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로 ‘오디’가 내려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한 표도 이탈 없이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것이며 이날 이사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

고대영 후보자는 2012년, 2014년에 이어 3번째 도전 끝에 한국방송 최종 후보에 오른 그는 한국방송 안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불신임’ 인물로 불리고 있다. 그가 보도국장 과 보도본부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특보방송 편파, 용산참사 축소·편파 보도 등 편파방송을 이끌어 93.5%, 84%의 불신임을 받을 정도로 기자들에게도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공영방송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국영방송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14629.html>

[조선일보] 학교 때 신문 읽은 학생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갔다

신문을 구독하는 가정의 고교생들은 비구독 가구의 학생보다 수능 시험에서 과목별로 6~8점 높은 점수를 받고,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취업률도 더 높다는 실증(實證)적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고교 시절 교양·문학 서적을 많이 읽을수록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2004년 당시 고교 3년생이던 일반계 및 전문계 학생 4000명(현재 30세)을 대상으로 11년간 추적 조사한 '신문·독서 읽기와 학업 성취도 및 취업'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직능원은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간다는 사실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라며 "'활자 매체의 힘'이 생각보다 컸다"고 26일 밝혔다.

한현 교양·문학 서적을 11권 이상 읽은 학생과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3점에서 많게는 19점 차이가 났다. 특히 서적 독서량이 갈수록 신문 구독 가구의 학생이 비구독 가구 학생에 비해 언어·수리·외국어 과목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7/2015102700298.html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1면에 실었는데, 설마 조선일보 읽으면 점수 좋아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지. 너무나 빈번하고 노골적인 사실 왜곡, 누락, 설익은 주장으로 이미 지성사회에서 도태된 조선일보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신문이 아니다.

[한겨레] [사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저서의 왜곡 출판 파문

보여줘서는 안 될 신문이 있다면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경제신문이다. 한겨레 사설을 소개하겠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 <위대한 탈출>의 출판사가 한국어판 출판사를 상대로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어판이 원저의 내용을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왜곡이 사실’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국어 출판사는 다른 아닌 친 기

업 성향의 <한국경제> 계열 한경비피다.

어제도 소개했지만 <위대한 탈출> 한국어판은 저자의 핵심 의도가 담긴 부분은 빠지기 일쑤였고, 특히 미국 내 불평등을 다룬 중요 부분은 내용이 변질됐다.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인 원저의 부제도 한국어판에선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진시키나'로 둔갑해버렸다. 이번 사태가 한 출판사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 건, 불평등이라는 현실을 대하는 우리 사회 일부의 불편한 시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이후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한국경제>가 디턴 교수의 메시지를 "경제적 불평등은 성장의 원동력"으로 호도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일부 학자들이 "좋은 불평등론"으로 화답하고 나선 것은 불평등에 쏠리는 뜨거운 관심을 돌리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걸 떠들어대는 신문이 바로 매일경제, 한국경제같은 자본의 나팔수들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14510.html>

[국민일보] 한국도 '현금 없는 사회' 왔다

프랑스는 1000유로(약 125만원)가 넘는 고가 물품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벨기에(5000유로), 스페인(2500유로) 등 유럽 주요국들도 현금결제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현금을 최대한 줄이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다. 현금이 사라지는 모습은 유럽의 얘기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물 한 병을 살 때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먼저 꺼내고,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산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결제하는 모습이 익숙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계좌이체나 카드 등 비현금 지급 결제액은 하루 평균 338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다. 이런 '현금 없는 사회'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 시스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대로 모든 거래를 금융 시스템에서 파악하는 건 개인 금융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가 통제가 강화되는 데 따르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 금융보안 기술 투자도 늘려야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95483&code=11151100&sid1=spe>

[중앙일보] 남아도는 쌀 140만, 북한에 지원할 수도 없고 ...

풍년의 역설이 농심(農心)을 덮쳤다. 당정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쉽고 빠른 길은 대북 쌀 지원이다. 북한은 지난 7월 '왕가물(가뭄)'이 들었다고 발표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지난 21일 "북한의 쌀·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 430만t보다 60만t 줄어든 370만t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시킨 5·24 제재 조치가 걸림돌이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없이 남측이 일방적으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명분은 마땅치 않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넘치는 쌀을 해외 무상원조에 활용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쌀을 북한에 보낸 적은 있어도 다른 국가에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쌀 대외 원조가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감안하면 연간 1만~4만t 정도를 해외 원조에 쓸 수 있다. 올해 쌀 공급 과잉 예상분(29만t)에 턱없이 못 미친다. 쌀 재고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

에 이르렀다.

반면 남아도는 쌀을 처리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 국내 쌀 수요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10년 72.8kg에서 2014년 65.1kg으로 10% 넘게 줄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18940355>

■ 오늘의 날씨

밤사이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친 다음,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겠다. 오늘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아래 머물겠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초반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YTN)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건브리핑'은 경향신문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청년에게 '권좌'를"이라는 칼럼을 일부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까 한다.

"지금의 청년들은 헬조선과 망한민국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의 어른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그리할 수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진위가 의심스러운 답이다. 왜냐고? 자신들이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빠져나갈 길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당사자인 청년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다. 설사 알 수 있다손 쳐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해당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금의 청년들을 '경제동물'로 가정한 채, 헬조선과 망한민국의 부조리함을 그저 '저소득과 내수 침체'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정과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청년들은 헬조선과 망한민국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의 '전위'가 아니라, 기껏해야 헬조선과 망한민국의 노동자 혹은 소비자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혹은 소비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헬조선과 망한민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새로운 세계로의 나아감? 어불성설이다. 벗어남과 새로움은 자유와 용기와 열정을 필요로 한다. 돈과 상품의 사슬에 묶여 있는 노동자와 소비자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덕목이다. 권력의 자리이다. 자유와 용기와 열정을 낳는 자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 지금의 청년들이 헬조선과 망한민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권력의 자리를 내줘야 한다.

헬조선과 망한민국의 처참함을 겪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곧 그 세계에 가담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다. 청년들에게 권력의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62031325&code=990100

역사교육 잘못 받아 청년들이 특하면 나라탓, 특하면 헬조선 운운한다는 집권여당 대표의 인식, 이런 얕은 인식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 답담하기만 하다.